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은 기 수**

I. 서 론

2020년에 전개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돌봄이 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돌봄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이토록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며, 돌봄의 담당자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돌봄이 위기에 처하면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뼈저리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¹⁾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도입되고,²⁾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문을 걸어잠그면서, 한국사회는 돌봄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최윤경 외, 2020).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학교교육은 입식교육이라는 인식만 팽배해 있었는데, 코로나19의 결과 모든 급의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학교가 단순히 교육을 위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돌봄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기관이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육원 등을 포함한 학령전 인구를 수용하는 기관과 초중고교가 대면수업을 금지하면서 한국의 모든 ‘엄마’는 패닉

* 이 글은 현재 연구 진행 중인 장지연 외(2020),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중 제4장의 내용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eunkisoo@snu.ac.kr).

1) “돌봄·간병 여성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멈춰 있을 것,”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34597.html>. 지금까지 돌봄은 의례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 돌봄노동자, 보건의로 종사자 등 넓은 의미의 모든 돌봄노동은 한 사회의 일상생활이 지속되는 가장 핵심적인 형태의 노동이다. 지금까지 돌봄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도 않았고, 돌봄을 위주로 한 직업은 어느 직업에 비해서도 낮은 보수를 받으며, 사회적인 인식과 평가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유급 돌봄노동뿐만 아니라 무급 돌봄노동이 가진 중요성과 의미는 단순히 수사학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재인식되어 이에 따라 돌봄경제(care economy)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사회적 거리 두기(~5월 5일까지),”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7>

상황에 빠져들었다.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자녀 돌봄을 거의 전담해 온 여성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전에 글자 그대로 전업주부 혼자서 하루 종일 자녀를 돌본 것은 아니었다. 학령전 어린 자녀를 학령전 돌봄 및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었고, 어린 자녀가 기관에서 돌보아지고 있는 시간 동안에 전업주부도 자녀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거나 돌봄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학령전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과 기관이 문을 닫고 어린 자녀가 하루 종일 집에 머물게 되면서 전업주부는 자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찾지 못하고 자녀 돌봄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에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제일 취약하고, 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은 어린 자녀 돌봄시설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폐쇄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보육원, 유치원, 각급 학교 등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기관도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전면적으로 폐쇄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과 함께 자녀 돌봄시설이 폐쇄되고, 자녀 돌봄의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를 비롯한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특히 자녀 돌봄의 일차적인 담당자로 간주되는 여성들은 패닉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긴급돌봄서비스,³⁾ 돌봄휴가,⁴⁾ 재택근무의 확산⁵⁾ 등 여러 정책이 작동하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최윤경, 2020), 돌봄공백을 완전히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하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위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전히 낮고, 특히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에 있는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전환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은기수, 2018; Besamusca, Tjzens, Keune and Steinmetz, 2015). 소위 여성의 M자형 노동시장 참여유형은 아직도 큰 변화가 없다. 여성들이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경제적 정책의 실현 또한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여성의 일과 삶의 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이윤추구가 제일의 목표인 기업 입장에서 출산과 양육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배려하는 것은 언제나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여성들은,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문제를 해결

3) '긴급돌봄' 신청률 저조... 정부 "가족 돌봄휴가 노동자에 지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30364.html>

4) 가족 돌봄휴가 연간 20일까지 가능... "휴가비용 지원도 협의 중",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1059.html>

5) 국내 기업들, 코로나 확산에 재택근무 조치 강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113340002311>

하면서 일을 지속하기 위해 분투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한국여성, 특히 일하는 여성에게는 재앙과 같은 것이었다. 소위 정상적인 사회환경 속에서도 돌봄기관과 시설, 가족 및 친척 등 가족자원, 그리고 본인의 여러 희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 돌봄문제를 해결하면서 임금노동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전염병은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삶의 병행 노력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재앙의 조건을 낳았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한국사회에서 자녀 돌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탐구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자녀 돌봄의 상황의 악화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 돌봄의 부담과 그 변화는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제일 큰 충격을 준다. 남성의 경우, 그들 스스로는 자녀 돌봄의 일차적인 주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남성에게도 자녀 돌봄의 새로운 부담을 던져주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전개는 여성의 자녀 돌봄행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성의 자녀 돌봄행위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야기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남성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을 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을 하는 여성과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개되던 시기에 자녀 돌봄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느 층이 자녀 돌봄의 부담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등을 탐구해보려고 한다.

II. 자료와 연구방법

이 연구자료는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25일간 서울대 국제대학연구소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코로나19와 한국의 아동 돌봄 설문조사(자녀 돌봄조사)의 온라인 서베이 자료이다.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연구진은 자녀 돌봄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여 한국갤럽에 제공하였고, 한국갤럽은 원 설문지를 웹 설문지로 개발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2020년 4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만 0~12세까지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원 중 부모 이외에 아동 돌봄이 가능한 조부모나 기타 친인척, 만 18세 이상 형제 또는 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권역별, 자녀연령별로 비례배분한 층별 표본추출을 시도해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약 25일간에 걸친 자녀 돌봄조사에 1,252명이 응답하였다.

이 자녀 돌봄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녀 돌봄조사에 참여한 1,252

〈표 1〉 코로나19와 한국의 아동돌봄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단위: %, 명)

| | | 남성 | (N) | 여성 | (N) |
|-----------------|--------|-------|-----|-------|-----|
| 연령 | 34세 이하 | 6.9 | 36 | 15.2 | 111 |
| | 35~39세 | 25.2 | 132 | 36.1 | 263 |
| | 40~44세 | 41.9 | 219 | 34.0 | 248 |
| | 45세 이상 | 26.0 | 136 | 14.7 | 107 |
| 최종학력 | 중졸 이하 | 0.2 | 1 | 0.0 | 0 |
| | 고졸 | 6.1 | 32 | 11.0 | 80 |
| | 대졸 | 75.3 | 394 | 79.6 | 580 |
| | 대학원졸 | 18.4 | 96 | 9.5 | 69 |
| 코로나19 이전 취업여부 | 취업 | 95.2 | 498 | 64.9 | 473 |
| | 비취업 | 4.8 | 25 | 35.1 | 256 |
| 코로나19 상황 시 취업여부 | 취업 | 92.7 | 485 | 53.1 | 387 |
| | 비취업 | 7.3 | 38 | 46.9 | 342 |
| 가구유형 | 맞벌이 | 68.3 | 357 | 48.7 | 355 |
| | 남성 홀벌이 | 24.5 | 128 | 38.8 | 283 |
| | 여성 홀벌이 | 2.3 | 12 | 4.4 | 32 |
| | 부부 비취업 | 5.0 | 26 | 8.1 | 59 |
| 합 계 | | 100.0 | 523 | 100.0 | 729 |

명 가운데 남성 응답자는 523명(41.8%), 여성 응답자는 729명(58.2%)이었다. 남성 응답자는 40~44세 응답자가 전체 남성 응답자의 42%를 차지한 반면, 여성 응답자는 35~39세 응답자가 전체 여성 응답자의 36%, 40~44세 응답자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 돌봄조사에 참여한 남성과 여성 모두 75% 이상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남성 응답자의 95%, 여성 응답자의 65%가 취업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남성 응답자는 93%, 여성 응답자는 53%가 취업하고 있다고 밝혀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녀 돌봄조사에 참여한 남성 응답자는 68%가 자신의 가구가 맞벌이 가구라고 했고, 여성 응답자는 49%가 맞벌이 가구에 속한다고 했다. 남성 혼자 돈을 벌며 생계를 이어가는 남성 홀벌이 가구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24.5%, 여성 응답자의 경우 39%여서 남성 응답자가 훨씬 높은 비율로 맞벌이 가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홀벌이 가구나 남녀 모두 비취업 상태인 가구의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이번 자녀 돌봄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녀 모두 고학력이지만, 남성의 경우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여성 응답자는 일하는 여성과 일

하지 않고 전업주부인 여성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의 자녀 돌봄의 경험을 비교하기에 좋은 표본조사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전체 응답자 1,252명 가운데 ① 맞벌이 부부 가구의 남성(357명), ② 맞벌이 부부의 여성(355명), ③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128명), ④ 남성 홀벌이 가구의 전업주부(283명) 등 1,123명을 고르고, 여성 혼자만 일하는 경우 및 부부 모두 실업상태라고 응답한 경우인 129명을 제외하였다. 이 조사는 0~12세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가구의 남성과 여성이 표집대상이었다. 그래서 응답자 가운데는 12세 이상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남성과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어린 자녀 돌봄이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자녀가 모두 0~12세인 경우로 다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① 맞벌이 부부 가구의 남성(284명), ② 맞벌이 부부의 여성(283명), ③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101명), ④ 남성 홀벌이 가구의 전업주부(237명) 등 총 905명이 분석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과 코로나19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녀 돌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가족 돌봄조사는 온라인 조사의 한계로 인해 응답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가구 특성에 관한 문항을 많이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 가족 돌봄조사는 온라인 서베리로 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할 때보다 응답자 개인의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의 여러 특성에 관한 설문항을 많이 포함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조사환경과 설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도와 평균 등을 계산하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한다.

III. 자녀 돌봄의 변화 양상

한국사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에서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담당자는 “엄마”로 대표되는 여성이다. 남성은 이 조사 돌봄자료에서도 여성에 비해 이차적인 돌봄제공자로 나타난다. 여성이 자녀 돌봄의 일차적인 돌봄을 책임지고, 남성은 여성의 돌봄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한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남성은 자신의 배우자인 여성 또한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을 하기 때문에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보다는 자녀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맞벌이 부부 가구에 속하는 일하는 여성과 남성 홀벌이 가구에 속하는 전업주부를 골라 이 두 부류의 여성들 사이에 자녀 돌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가구의 남성과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 등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 두 부류의 남성 사이에 자녀 돌봄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을 전후해서 자녀 돌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남성과 여성 각 각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네 부류의 남성과 여성의 자녀 돌봄을 비교분석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집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1. 무급 자녀 돌봄

어린 자녀의 돌봄은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유급 돌봄시설을 이용해서 자녀 돌봄이 시작된다. 그러나 유급 돌봄시설을 이용해도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하루 종일 유급 돌봄시설을 통한 자녀 돌봄은 불가능하다. ‘엄마’나 ‘아빠’로 대표되는 어린 자녀의 부모, 조부모 등 친인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무급 자녀 돌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한국과 같이 많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의 시기에 전업주부로 존재하는 경우, 무급 자녀 돌봄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의 주요 활동이 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한국의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자녀 돌봄부담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 돌봄조사에 응답한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무급 자녀 돌봄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0~12세 자녀를 한 명이라도 둔 기혼남녀에게 본인의 무급 자녀 돌봄시간과 배우자의 무급 자녀 돌봄시간을 파악해보면,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무급 자녀 돌봄에 하루 평균 5시간 3분을 쓴다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되고 휴원, 휴교사태가 진행되어 자녀들이 외부 유급 돌봄시설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은 하루 평균 6시간 47분을 무급 자녀 돌봄에 쓴 것으로 파악된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은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전보다 하루 평균 1시간

<표 2> 남성과 여성의 하루 평균 무급 자녀 돌봄시간

| | 본인 | | 배우자 | |
|------------|----------|----------|----------|----------|
|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상황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상황 |
| 맞벌이 일하는 여성 | 5:03 | 6:47 | 3:02 | 3:50 |
| 전업주부 | 9:06 | 12:38 | 2:18 | 2:47 |
| 맞벌이 일하는 남성 | 3:08 | 3:54 | 4:40 | 5:37 |
| 홀벌이 일하는 남성 | 3:01 | 3:30 | 9:37 | 12:27 |

주: 분석대상은 맞벌이 가구의 여성(283명), 남성 홀벌이 가구의 전업주부(237명), 맞벌이 가구의 남성(284명),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101명)임.

44분, 무급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된 것이다.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시간은 이보다 훨씬 많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0~12세 자녀를 한 명이라도 둔 전업주부는 하루 평균 9시간 6분을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고,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하루 3시간 이상 자녀를 돌보는데 드는 시간이 증가하여 12시간 38분을 자녀를 돌보는데 들이고 있다.

맞벌이 부부 가구에 속하는 일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3시간 8분을 무급 자녀 돌봄에 사용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거의 50분가량 더 증가한 3시간 54분을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하고 있다. 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있고 홀로 경제 활동을 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3시간 1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약 30분 정도 더 증가한 하루 평균 3시간 30분을 자녀 돌봄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시간에 커다란 격차가 있음이 확인된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자녀 돌봄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증가한 반면,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시간은 3시간 30분 이상 증가하여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부담이 훨씬 증가한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의 남성이나 홀벌이 가구의 남성 모두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의 증가량이 1시간 미만이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의 자녀 돌봄시간의 증가량(1시간 40분)은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시간의 증가량보다 훨씬 적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 돌봄에 들이는 시간을 늘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긴급돌봄서비스 등이 제공되어도 일하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이 더 필요한 자녀를 돌보는데 들이는 시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현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아직도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 일과 삶을 양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코로나19 상황은 일하는 여성에게 가해진 큰 고통이었을 것이고,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지속하는 한 자녀 돌봄시간을 늘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성에게 분명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자녀 돌봄시간을 요구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전업주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은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도 일을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 자녀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응답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남성은 자신의 일하는 여성 배우자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에 들이는 시간이 약 57분 정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자녀 돌봄에 요구되는 시간은 커졌을텐데, 실

제로 일하는 여성 배우자가 할애할 수 있는 자녀 돌봄시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남성 배우자도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 응답자는 자신의 전업주부 배우자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는데 들이는 시간이 거의 3시간 가까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전업주부 응답자 자신은 3시간 30분 정도 자녀 돌봄시간이 증가했다고 보고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지만,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 응답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다른 집단에 비해 전업주부가 자녀 돌봄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2. 주중(평일) 부부의 자녀 돌봄 분담상황

앞에서 코로나19 이전 및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부의 자녀 돌봄상황을 절대적 시간의 개념에서 파악해 보았다면, 여기에서는 부부의 자녀 돌봄 분담상황을 비율로서 파악해 본다. 〈표 3〉에서는 주중 평일에 부부의 자녀 돌봄 분담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여성 응답자의 부부간 자녀 돌봄 분담인식을 살펴보자.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 응답자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내 자녀 돌봄 분담비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다. 즉 코로나19 이전에도 일하는 여성 자신이 자녀 돌봄에 분담하는 비율은 51.2%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에서 자신의 분담비율은 51.7%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 돌봄 분담비율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자녀 돌봄에 절대적인 시간의 증가는 있지만, 부부간 혹은 가족내 자녀를 돌보는 주체의 자녀 돌봄 분담비율에는 유의미한 변

〈표 3〉 주중 평일 부부의 자녀 돌봄 분담상황

(단위: %)

| |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 | | 전업주부 | | 맞벌이 부부 가구의 남성 | |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 | |
|-----|-------------------|----------|----------|----------|---------------|----------|---------------|----------|
|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상황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상황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상황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상황 |
| 본인 | 51.2 | 51.7 | 69.6 | 80.2 | 24.7 | 27.4 | 19.6 | 22.7 |
| 배우자 | 19.6 | 19.5 | 14.1 | 12.7 | 45.8 | 44.4 | 65.4 | 68.7 |
| 기타 | 29.3 | 28.8 | 16.3 | 7.0 | 29.5 | 28.2 | 15.0 | 8.6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분석대상은 맞벌이 가구의 여성(283명), 남성 홀벌이 가구의 전업주부(237명), 맞벌이 가구의 남성(284명),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101명)임.

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전업주부 응답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녀 돌봄에 들이는 절대적인 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자녀를 돌보는데 배우자를 포함한 여러 주체의 자녀 돌봄 분담 중 거의 70%를 자신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이 분담비율이 평균 80%로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전업주부 응답자들은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 배우자의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코로나19 이전에 14.1%에서 코로나19 상황 중에는 12.7%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남성 응답자들은 자신의 가족내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더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남성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자신의 가족내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24.7%였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27.4%로 증가했다고 인식한다.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 응답자도 코로나19 이전에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19.6%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22.7%로 약간 증가했다고 인식한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남성 응답자들은 자신의 배우자인 일하는 여성의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약간 감소했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 응답자들은 자신의 배우자인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65.4%에서 68.7%로 약간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모든 남성과 여성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증가했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네 집단 가운데 전업주부 응답자들이 자신의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른 집단의 남성과 여성은 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담비율을 보고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분담비율의 변화만큼 큰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전업주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자녀 돌봄 절대시간량의 측면에서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절대시간량의 증가가 제일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자녀 돌봄 시간량의 증가비율로 보면, 일하는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량의 증가비율도 전업주부와 별로 차이가 없다. 일하는 여성의 자녀 돌봄 절대시간량의 증가가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절대시간량의 증가보다 작다고 해서 일하는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은 크지 않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상황에서 가족내 자녀 돌봄 분담비율의 측면에서 보면, 전업주부 스스로 자녀 돌봄의 가족내 분담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런 자녀 돌봄의 가족내 분담비율의 증가는 다른 어느 집단의 분담비율보다 높은 것이다. 무급 가족 돌봄과 무급 자녀 돌봄의 가치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은 무급 자녀 돌봄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절대시

간을 크게 증가시켰고, 가족내 자녀 돌봄의 분담부담도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표 2>와 <표 3>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3.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에 관한 태도

여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자녀 돌봄의 여러 측면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부담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우리의 분석이 더 유의미해질 수 있다. 자녀 돌봄의 절대적 시간의 증가 및 가족내 자녀 돌봄 분담비율의 증가는 비단 객관적 부담의 증가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증가와 같은 주관적 부담의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음 <표 4>는 자녀 돌봄조사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자녀 돌봄의 경험 중 하나인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욕구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쩌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자녀와 강제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낳는다고 인식한다면, 이러한 가정이 늘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분명히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증가시켰는데, 그 상황이 더 좋은 경험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자녀 돌봄조사 결과, 한국에서 0~12세까지의 자녀를 한 명이라도 둔 부모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혀 좋지 않았거나 별로 좋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네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

<표 4>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자녀 돌봄의 경험: 코로나19 이전보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음

(단위: %, 명)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N |
|------------|-----------|-----------|--------|--------|-----|
| 맞벌이 일하는 여성 | 3.9 | 15.4 | 67.7 | 13.1 | 130 |
| 전업주부 | 7.9 | 26.3 | 54.0 | 11.8 | 152 |
| 맞벌이 일하는 남성 | 2.4 | 25.8 | 64.5 | 7.3 | 124 |
| 홀벌이 일하는 남성 | 0.0 | 19.9 | 70.3 | 10.8 | 37 |

주: 이 문항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응답자에게만 적용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표 4>의 사례수는 <표 5> 및 <표 6>의 사례수와 차이가 남.

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

맞벌이 부부 가구에 속하는 여성 응답자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은 80.8%로 매우 높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남성 응답자도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1.8%로 여성 응답자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편이다. 부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담이 증가했지만, 자녀 돌봄의 가족내 분담비율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남성 응답자 역시 자녀 돌봄의 절대적 시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을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과 그 배우자인 전업주부의 인식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홀벌이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81.1%로 매우 높다. 네 집단 중 홀벌이 남성 응답자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전업주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65.8%로 네 집단 중 가장 낮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응답비율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맞벌이 부부 가구에 속하는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긍정비율의 차이는 9%포인트이다. 그런데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긍정비율의 차이는 15.3%포인트이다.⁶⁾

이러한 결과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맞벌이 부부 가구에 속하는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긍정적인 답변비율을 볼 때, 맞벌이 부부의 남성과 여성 부부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시간의 절대량이 전업주부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돌봄시간량의 상대적 증가량은 컸다. 그러나 가족내 돌봄 분담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의 증가로 정신적인 만족의 증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 홀벌이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약간 증가한 것이 역시 부담이거나 스트레스로 인식되기보다는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업주부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보다 높다. 그러나 다른 집단에 비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낮다. 전업주부에게는 어차피 자녀 돌봄이 일차적인 임무이고, 평소에도 자녀를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 왔었는데, 코로나

6) 사례수가 37명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9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부담, 즉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식되는 면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강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전업주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진술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8%에 이르고, 이는 다른 어느 집단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즉 강하게 부정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담이 증가한 전업주부가 객관적, 주관적인 측면에서 모두 제일 높은 부담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전업주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의 측면에 처한 어려운 상황은 <표 5>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에서 재차 확인된다. 전업주부는 자녀 돌봄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힘든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자녀가 엄마의 직접 돌봄단계를 지나서 돌봄시설에 맡겨 돌봄을 받는 경우, 전업주부도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돌봄시설이나 다른 돌봄제공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돌봄시간이 줄어들고, 전업주부가 거의 전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돌봄의 절대시간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표 4>에서 확인했듯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표 5>에 제시된 대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매우 직설적인 질문에 대한 네 집단의 긍정적 응답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맞벌이 부부 가구에 속하는 남성 응답자들은 자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진술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33%에 불과하다. 남성 홀벌이 가구에 속해 일하는 남성의 경우에도 역시 자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데 41.6%만이 동의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남성 응답자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진술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해서 좋았다고 생각하

<표 5>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자녀 돌봄의 경험: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음
(단위: %, 명)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N |
|------------|-----------|-----------|--------|--------|-----|
| 맞벌이 일하는 여성 | 10.3 | 33.2 | 37.8 | 18.7 | 283 |
| 전업주부 | 4.6 | 19.0 | 31.2 | 45.2 | 237 |
| 맞벌이 일하는 남성 | 16.9 | 50.0 | 29.2 | 3.9 | 284 |
| 홀벌이 일하는 남성 | 12.9 | 45.5 | 36.6 | 5.0 | 101 |

는 비율이 높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도 56.5%나 되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에 추가적으로 소요된 시간이 가장 많고, 가족내 자녀 돌봄의 분담비율도 증가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진술에 76.4%가 동의하고 있다. 전업주부는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태도가 네 집단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절실히 원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같은 여성이지만 맞벌이 부부 가구의 여성 응답자의 56.5%와 비교하면, 전업주부는 21% 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코로나19 상황 속의 자녀 돌봄 부담 속에서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5>의 응답결과는 전업주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 돌봄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요약과 결론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자녀 돌봄, 특히 무급 자녀 돌봄에 일어난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 변화를 밝히기 위해 이 연구는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코로나19와 한국의 아동 돌봄 설문조사”(자녀 돌봄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무급 자녀 돌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밝히기 위해 맞벌이 부부 가구의 남성 및 여성 응답자와 남성 홀벌이 가구의 남성 및 여성 응답자(전업주부) 네 집단으로 나누어 자녀 돌봄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자녀 돌봄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업주부가 자녀 돌봄에 쓰는 시간의 양은 일하는 여성이나 일하는 남성보다 높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네 집단의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를 돌보는데 쓰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전업주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를 돌보는데 하루 평균 12시간 38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 여성이면서 일하는 여성 응답자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했다는 6시간 47분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일하는 남성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들였다는 시간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시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시간의 변화량으로 보면, 일하는 여성의 자녀 돌봄시간의 증가도 전업주부와 비슷한 정도로 증가했다.

셋째,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네 집단의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족내 자녀 돌봄의 분담 측면에서 자신들이 자녀 돌봄 분담비율이 조금이라도 증가하였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전업주부가 가족내 자녀 돌봄을 분담하는 비율은 다른 어느 집단의 남성과 여성이 가족내 자녀 돌봄을 분담하는 비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넷째, 자녀 돌봄의 객관적 부담은 주관적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녀 돌봄의 객관적 부담이 높은 전업주부는 일하는 여성이나 남성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간주한 비율(65.8%)이 낮았다.

다섯째, 전업주부는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이 무급 자녀 돌봄에 일으킨 변화의 한 단면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자녀 돌봄과 관련해 전 사회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자녀 돌봄의 어려운 상황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유아원, 보육원 등에 가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면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거나, 긴급돌봄서비스, 육아휴직제 등 제도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Del Boca, Oggero, Profeta, and Rossi, 2020).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은 한국의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 돌봄의 절대시간이라는 측면과 가족내 자녀 돌봄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전업주부는 거의 일방적으로 자녀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나 일하는 남성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시간을 늘이거나 가족내 자녀 돌봄 분담의 비율을 높인다고 해도, 이러한 증가는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시간의 증가나 가족내 자녀 돌봄 분담비율의 증가와 비교하면 작은 증가이다.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의 절대적 시간과 자녀 돌봄 분담의 절대적인 부담은 정신적인 부담 혹은 스트레스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른 집단의 남성이나 여성과는 달리 전업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는 자녀 돌봄과 관련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돌봄의 부담이 한국사회에서는 일하는 여성이 아니라 무급 가족 돌봄과 무급 자녀 돌봄의 담당자인 전업주부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나 사회는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우려하고 일과 가정, 일과 자녀 돌봄,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의 삶을 보장하는데 관심을 쏟아 왔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하는 여성의 고통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반면에 자녀 돌봄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무급 자녀 돌봄과 그 부담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전개와 함께 자녀 돌봄의 측면에서 전업주부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모두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업주부는 당연히 무급 자녀 돌봄을 하는 주체이고,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업주부의 무급 자녀 돌봄 부담의 증가는 큰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업주부는 자녀 돌봄의 객관적, 주관적 부담을 크게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전개 속에 돌봄의 위기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주로 일하는 여성이 일과 자녀 돌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러 돌봄정책이 마련되고 실시되어 왔지만,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일하는 여성의 자녀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만 집중한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무급 자녀 돌봄의 주체인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의 부담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의 객관적, 주관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KIU**

[참고문헌]

- 윤희숙 편(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KDI 연구보고서 2010-01.
- 은기수(2018),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단절」, 『한국인구학』 41(2), pp.117~150.
- 최윤경(2020), 「코로나19와 아동 돌봄의 쟁점」, 육아정책연구소, 이슈브리프 여름호, pp.63~69.
- 최윤경 · 박원순 · 최윤경 · 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0-01.
- Del Boca, Daniela, Moemi Oggero, Paola Profeta, and Mariacristina Rossi(2020), “Women’s Work, Housework, and childcare before and during COVID-19,” <https://voxeu.org/article/women-s-work-housework-and-childcare-and-during-covid-19>